

연구논문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워의 ‘근대화론’과 한국사 인식*

인종철**

머리말

1. 라이샤워의 동아시아인식과 ‘근대화론’
 - 1) 라이샤워의 생애와 아시아와의 관련
 - 2) 라이샤워 ‘근대화론’의 특징
2. 라이샤워의 한국인식과 한국학
 - 1) 라이샤워와 한국의 관계
 - 2) 라이샤워의 한국인식의 특징

맺음말

머리말

에드윈 O.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90)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오랜 동안 일본사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형성에도 중요한

* 이 글은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진행된 ‘동아시아한국학’월례발표회(2011년 4월 28일)와 한국근현대사학회 월례발표회(2011년 5월 14일)에서 발표한 글들을 수정·보완해서 2012년 6월 21일에 본 저널에 투고한 것이다. 이 글의 최종 편집단계에서 장세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동아시아, ‘권력/ 지식’의 테크놀로지—전후 미국의 지역연구와 한국학의 배치』, 『상허학보』 36, 2012(2012년 7월 20일 상허학회와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주최의 “고유성의 지정학” 공동학술회의 발표)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글에 반영할 수 없었다.

** 미국 코네티컷 주 동암연구소 연구원.

대표논저: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역사학보』 189, 2006;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의 일본과 한국인식, 1876~1910』, 『일본연구』 15, 2011; 『해방 전후 아더 번스(Arthur C. Bunce)의 활동과 미국의 대한정책』, 『미국사연구』 31, 2010 등 해방 전후 한국 관련 미국인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다.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주일 미대사를 역임했던 인물로 1960년대 ‘근대화론’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주일 미대사를 사임한 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업적을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한일국교정상화)라고 회고할 만큼 한국과 일본의 고위층간 협상에서 막후 역할을 담당했다.¹⁾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의 아시아센터(Asia Center)의 소장으로 미국 내에서 동아시아학, 특히 일본학을 정착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냉전시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 등지의 학자들이 하버드에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그와 교류를 했다. 그리고 그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정치가인 김영삼, 김대중 등의 미국 내 후원인 중 한 사람이었다.

라이샤워가 보여준 연구 및 활동의 영역은 중일고대관계사로부터 일본근대사·현대사, 미일관계사, 미국외교사 등에 걸쳐서 매우 폭이 넓어서 여전히 그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그와 그의 동 세대들이 가졌던 ‘근대화론’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서는 냉전 이후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²⁾ 그리고 ‘근대화론’과 일본사, 그리고 지역학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³⁾ 라이샤워의 일본사 인식과 ‘근대화론’에 대해서

1)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Tokyo, Japan: John Weatherhill, Inc., 1986, pp.206~207; George R. Packard, *Edwin O. Reischauer and the American Discovery of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pp.197~200. 패카드는 라이샤워가 주일대사로 재직할 때 그의 참모였고 후일 존스 홉킨스대학교의 국제학 대학(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의 학장을 역임했다. 한일기본조약체결당시의 라이샤워의 역할은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2) 이 문제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Michael Latham, *Modernization as Ideology: American Social Science and "Nation Building" in the Kennedy Er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3) 대표적인 것들로 다음을 들 수 있다. Richard H. Minear, "Orientalism and the Study of Japa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9, No. 3, 1980, pp.507~517; 동 저자, "The Wartime Studies of Japanese National Character," *The Japan Interpreter*, Vol. 13, 1980, pp.36~59; 동 저자, "Cross-Cultural Perception and World War II: American Japanists of the 1940s and Their Images of Japa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4, No.4, 1980, pp.555~580; 지역학 전반의 구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연구로는 H. D. Harootunian, "America's Japan / Japan's Japan," Masao Miyoshi and H. D. Harootunian eds., *Japan in the World*,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는 국내에서도 이미 소개가 잘 되어 있다.⁴⁾ 또한 한국에 수용된 ‘근대화론’에 대한 소개와 비판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⁵⁾

하지만 라이샤워가 동아시아 고대관계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고 하버드대학에서 한국학 교수직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국내외 아시아학 연구자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라이샤워가 미국 내 한국학의 초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거의 학문적 관심이 없다. 다만 한국학과 관련해서 ‘맥쿤-라이샤워 로마자 표기법’의 저자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필자는 이 글에서 라이샤워의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초점으로 하되, 그가 진행해온 일본 관련 연구, 특히 ‘근대화론’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한국 관련 연구가 전후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학 연구자인 하타다 다카시의 주장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라이샤워가 주도적으로 집필한 동아시아 관련 교과서 서술을 통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1. 라이샤워의 동아시아인식과 ‘근대화론’

1) 라이샤워의 생애와 아시아와의 관련

라이샤워는 일본에서 미북장교로 선교사로 활동한 어거스트 K. 라이샤워

4) 라이샤워와 그의 하버드 제자들(John W. Hall, George Akita, Albert Craig, Peter Duss, Marius Jansen, Robert Bellah)과 일본학자들 사이의 ‘근대화론’ 논쟁은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소개는 김용덕, 『일본근대사를 보는 눈』, 지식산업사, 1991, 특히 156~160쪽 참조.

5) 한국 내에서 근대화론에 대한 문제 검토는 김정동, 『근대화론』, 『한국사시민강좌』 25, 1999, 172~196쪽; 홍석률, 「1960년대 지식계의 동향—산업화의 근대화론의 대두와 지식인사회의 변동」,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한국현대사의 재인식 9』, 정신문화연구원, 1999, 191~256쪽; 박태균, 「로스토크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 2004, 136~191쪽; Gregg Brazinsky,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p.163~188 등을 참조.

(August K. Reischauer, 1879~1971)의 둘째 아들로 동경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어거스트는 일본 동경여자대학교를 세웠던 교육선교사였지만 일본 불교와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영국 왕립협회 일본 지부의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20세기 전반 구미인들의 일본학 연구에 관여했다.⁶⁾

어거스트 라이샤워는 인디애나(Indiana) 주의 장로교대학인 하노버(Hanover) 대학과 시카고의 맥코믹(McCormick) 신학교를 졸업하고 1905년 일본에 교육 선교사로 왔다. 그는 이후 35년 이상 일본과 관계하면서 대표적인 일본통이 되었다. 비록 보수적인 기독교 교육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사회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같은 학교 출신으로 식민지 조선 내 평양의 보수적인 기독교계를 이끌었던 사무엘 모펏(Samuel A. Moffett)과 일제 말 신사참배 문제로 대립하기도 했다. 모펏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선교사의 철수를 요구한 것에 반해 어거스트 라이샤워는 그것을 일본 문화에 대한 무식의 소치로 돌리면서 신사참배는 일본 내에서 기본적인 국민의례라고 보았다.⁷⁾

한편 아들 라이샤워는 일본에 있는 외국인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오하이오주의 명문 오벌린대학(Oberlin College)에서 학부,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차례로 마쳤다. 그는 후일 이 기간을 “미국 시민권자인 일본 거주자가 아니라 일본에서 우연히 태어나게 된 미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회고했다.⁸⁾ 이

6) 어거스트 K. 라이샤워의 활동과 일본여자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小檜山ルイ, 『帝國のリベラリズム—「ミッドル・グラウンド」としての東京女子大學』, 駒込武·橋本伸也 編, 『帝國と學校』, 京都: 昭和堂, 2007, 304~310쪽; 駒込武, 『朝鮮における神社參拜問題と日米關係—植民地支配と「内部の敵」』, 『帝國の戰爭經驗』, 岩波講座 4: アジア・太平洋戰爭, 東京: 岩波書店, 2006, 81~82쪽 참고

7) 신사참배에 대한 일본과 조선 내 미국 선교사들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46~47, 108쪽을 참고

8)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33.

는 후일 자신의 인생의 주된 역할을 미국인들에게 일본을 소개하는 것으로 삼았다고 한 것과 관련이 된다.⁹⁾

그는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2년간 파리, 3년간 일본, 중국 등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했고 1938년에 일본승 엔닌(円仁)의 여행기에 대한 연구와 주석으로 하버드대학 극동언어학과(Department of Far Eastern Languages)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곧바로 하버드대학의 전임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차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미 육군부와 국무부 등에서 정책입안 활동에 참여하다가 1946년 하버드대학으로 돌아와서 다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는 1960년대 주일 대사로 가있었던 몇 년을 제외하고는 1980년까지 줄곧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했다. 동시에 각종 연구기관의 이사를 역임하면서 미국 정부와 각종 단체의 동아시아문제에 대한 자문을 담당했다.¹⁰⁾ 또한 그는 1955년 새로이 발족된 미국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초대회장이 될 만큼 아시아학의 성장에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2차 대전 전후 일본학을 전공하던 미국의 학자들은 극소수였다. 1933년 미국 학술원(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는 미국 내에서 일본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몇몇 대학원생에게 수여했는데 이때 수여자로 라이샤워와 휴 보튼(Hugh Borton), 그리고 찰스 파아스(Charles B. Fahs), 치토시 야나가(Chitos Yanaga)를 들었다.¹¹⁾ 후일 이들은 미국 내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일본 전공자들의 첫 세대가 되었다. 특히 라이샤워, 보튼, 파아스(정치학)는 하버드, 콜롬비아 등등에서 일본학 전공자들이 되었다. 특히 하버드와 콜롬비아대

9) Rudolf V. A. Janssens, "A Historian Being "Pushed into Modern Affairs": Edwin O. Reischauer in Academia and Politics," *European Contributions to American Studies*, Vol. 46, No. 1, 2000, p.186.

10) 그의 이력에 대한 기본 정보는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를 참조. 자세한 각주는 생략한다.

11) Hugh Borton,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The Memoir of Hugh Borton*,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2, pp.42~47; 휴 보튼의 경력과 2차 대전당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 후구상은 안종철,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역사학보』 189, 2006 참고할 것.

학교의 동아시아연구는 후일 라이샤워와 보튼에 의해 중요한 경쟁 및 협력 상대가 되었다.¹²⁾ 보튼은 1920년대 후반에 일본에 케이커교 선교사로 있었고 1931년에 콜롬비아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고 그 후 유럽으로 건너가 네델란드 라이덴(Leiden) 대학에서 1937년 초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미국무부 일본과장을 담당했고 전후에는 콜롬비아 대학의 제2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파아스는 라이샤워와 함께 후일 1962~67년에 주일 미 대사관에서 문화관련 공사(cultural affairs minister)로 있었고 후일 미국에서 일본학 교수생활을 했다.

이들 소수에 의해서 전후에 미국의 일본학은 정착이 되었고 이들의 연구는 유럽에서 구축한 일본학과 연관이 있었다. 그 예로서 주일 영국대사관의 조지 샌섬(George S. Sansom)공사와 같은 사람들이 후일 콜롬비아대학교의 일본학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된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프랑스학자인 세르게이 엘리 세에프(Serge Elisseeff, 1934~1956)가 하버드 옌칭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을 만큼 2차 대전 전후로 미국 지역학의 자립성은 취약했다.

한편 라이샤워가 하버드에 제출한 박사논문은 일본 고대의 유명한 승려인 엔닌(円仁)을 다루었는데 그는 838년부터 847년까지 당나라를 여행했다. 엔닌은 ‘入唐求法巡禮行記’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 당시 통일신라인들의 당에서의 활동상이 소상히 나와 있다.¹³⁾ 라이샤워는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고대 중국사, 일본사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고대 한국인들의 활동에 주목하

12) 콜롬비아 대학교의 중국과 일본학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학에 대해서는 Wm. Theodore de Bary and Donald Keene, “East Asian Studies at Columbia: The Early Years,” *Columbia Magazine*, 2002 (www.columbia.edu/cu/alumni/Magazine/Spring2002/AsianStudies.html) (2001년 4월 19일 검색), 이하의 페이지수는 전자저널의 것으로 따른다.

13) Edwin O. Reischauer, *Emmin's Travels in T'ang China*,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55이다. 이 책의 제8장(the Korean's in China)과 제9장(Homeward Bound)는 한국어로 후일 번역이 되었다. 『해외논단』 당나라시대의 한국인 上, 『해양한국』 1990년 10월호; 『해외논단』 당나라시대의 한국인 下, 동 저널, 1990년 11월호. 여기에 엔닌과 장보고와의 관계라든가 산둥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 한국인들의 동향을 흥미롭게 서술했다. 엔닌의 여행기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 번역은 Edwin O. Reischauer, *Emmin's Diary: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New York: Ronald Press, 1955.

면서 한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그는 중국사, 특히 고대사를 하버드에서 가르치면서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이 점은 그가 페어뱅크와 함께 서술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동양문화사』)의 고대 중국부분에 대한 서술을 그가 맡았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14) 적어도 미국 내 초기 동아시아학에서는 중국학과 일본학이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첫 부인 아드리안 단톤(Adrienne Danton)을 사별한 지 1년 뒤인 1956년 1월에 마츠카타 하루(松方春)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메이지시기 재무상을 역임했고 일본 수상을 두 번이나 지낸 마츠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1834~1924)의 손녀딸이었다. 15) 라이샤워가 메이지유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 결혼관계는 미일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1960년대 미일안보조약개정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로 미국과 일본이 갈등 국면에 있을 때 미일간 정책 협조를 위한 공보 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편 라이샤워는 주일대사로 있었던 당시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주일대사로 임명되기 직전, 미 상원의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일 수교가 양국에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의 전제로 미일 관계가 안정적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16)

14) John K. Fair,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East Asia: Tradition & Transforma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1989). 이 책은 원래 1939년부터 페어뱅크와 라이샤워에 의해 진행된 하버드의 아시아학 강좌를 모태로 탄생한 두 권의 책을 저본으로 한다. 그것은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1960)과 *East Asia: The Modern Transformation* (1965)인데 1978년에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만들면서 수정했다. 그것을 한국의 민주화, 중국의 개방 등의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 위의 1989년 판이다. 이 책은 국내에서 전해중·민두기 공역, 『동양문화사』 상·하, 을유문화사, 1985로 소개되었는데 이것은 60년대 책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1989년 판을 번역한 것이 바로 김한규 역,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 1995이다. 이 책은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대표적인 동아시아사 개론서 역할을 한 셈이다.

15)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p.140~141.

16) 『라이샤워 주일 미국 신임 대사—한일관계 정상화면 양국 서로 유리』, 『조선일보』1961. 3.

라이샤워는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즉 미국-일본-기타 아시아국가라는 수직적인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사실 그는 1950년대부터 동아시아에서의 일본 자본의 한국과 대만 등지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반공을 위한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미국의 정책적 필요성을 역설했었다.¹⁷⁾ 흥미롭게도 그는 1950년대부터 중국과의 수교를 재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근거로 중국의 독자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일본에 대한 정책이 그 바탕에 있었다. 만약 일본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중재자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동아시아의 역내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중국의 소련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그것이 마오쩌둥의 중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¹⁸⁾ 후일 그는 미국 민주당정부의 임명을 받고 주일대사로 근무하면서 제3세계에 대한 원조와 경제개발정책을 지지했다.

사실 그가 주일 미 대사로 재직시 동아시아에 있었던 중요한 미국의 또 다른 정책은 바로 본격적인 베트남전쟁 발발(1964)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의도와 별개로 주일대사로서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베트남전쟁 수행을 찬성했다. 그러므로 그는 후일 젊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¹⁹⁾

1960년대 베트남전쟁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던 미국은 1969년에 ‘닉슨독트린’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병력철수를 기초로 한, 동아시아 문제에서 동아시아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에 이 전쟁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한국정부와 사회는 상당한 혼돈에 빠졌다. 1971년 한국에서는

24.

17) Edwin O. Reischauer, *Wanted: An Asian Policy*, NY: Alfred A. Knopf, 1955, pp.101, 208~210

18) *Ibid.*, pp.243~249.

19) 그의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지와 근대화론 등이 젊은 연구자집단의 비판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 특히 존 다우어(John W. Dower)와 허버트 빅스(Herbert Bix)등이 주도한 “아시아를 걱정하는 학자들 위원회(Committee of Concerned Asian Scholars)”가 주요 그룹이었다. George R. Packard, *Edwin O. Reischauer and the American Discovery of Japan*, pp.248~251.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고 베트남전쟁에 많은 병력을 파견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때 라이샤워는 1971년 6월 말 한국을 방문,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의 대담에서 베트남전쟁의 혼미 속에서 미국의 철수정책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래 한국의 통일에 대한 자신의 전망까지 밝혔다.²⁰⁾ 한국의 언론은 그의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또한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관계자 한 명과 함께 라이샤워는 아시아재단 이사로서 국립서울대학교를 방문해서 서울대 총장(한심석), 부총장(민병구), 교무처장(김철수)으로부터 '서울대종합화 10개년계획추진'과 그 일환으로서 서울대의 관악캠퍼스 건립안과 학제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향후 캠퍼스건립을 위해 재정 및 인적지원을 약속했고 현지의 사정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재정지원액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당시의 한국에서 대표적인 대학이 미국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과 대학의 총장이 대학확장문제를 '보고'할 만큼 중요한 인사들이었음을 보여준다. 라이샤워는 또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동아시아관련 강연을 했다.²¹⁾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정부가 권위주의적 독재로 돌아서게 되자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을 선호했다. 당시 미국의 한국정책은 주한 미군 철수, 대한 군원(軍援)지원, 그리고 미군 삭감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남았는데 라이샤워는 군원과 미군병력 감소를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 지도자들인 김영삼과 김대중을 미국에서 자주 만났다. 특히 김대중이 1971년 신민당 대통령후보로 나선 이후 박정희 행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자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하고 한국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²²⁾

20) 『라이샤워 교수 편협 간담회 연설—북괴 오산 유발 위협, 4~5년 후엔 통일 기미』, 『조선일보』, 1971. 6. 26.

21) 이들의 방문에 대한 사실은 『라이샤워 本校 방문, 綜合化 計劃에 關係 協議』, 『대학신문』, 1971. 6. 28; 『서울대 종합 계획 협의—라이샤워교수, 韓沁錫총장방문』, 『조선일보』, 1971. 6. 23.

22) 한국의 야당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2) 라이샤워 ‘근대화론’의 특징

라이샤워의 사상의 핵심은 반군국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대중교육을 통한 현명한 정책결정(informed decision)” 등을 들 수 있다.²³⁾ 거기에 더해 그는 역사를 통한 현실참여, 역사에서 근대사회의 변화, 유럽사의 변화라는 틀에 비추어 본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본의 제3세계에서의 모델 등을 주요한 입장으로 취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현재적 의미, 즉 ‘근대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라이샤워가 주장한 ‘근대화’는 바로 “산업기술의 혁신을 수반한 역사적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²⁴⁾ 라이샤워의 ‘근대화’는 사실상 ‘공업화’의 다른 말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⁵⁾ 그는 이 변화가 서구에서는 2세기 이상, 일본에서는 1세기 정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이 일본을 모델로 발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비서구국가 중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일본 사례는 제3세계의 발전에 폭넓은 함의가 있다고 그는 보았다.²⁶⁾

라이샤워나 동 세대의 ‘근대화론’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메이지유신(1868) 이전 시기, 즉 전통시대를 어떻게 보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일본

and America, p.316.

23) Rudolf V. A. Janssens, “A Historian Being “Pushed into Modern Affairs”: Edwin O. Reischauer in Academia and Politics,” p.186.

24) 라이샤워 저·이광섭 역, 『일본 근대화론』, 소화, 1997, 7쪽. 이 책은 1961~65년 간에 일본에서 라이샤워가 발표한 글을 모은 것으로 원저는 『日本近代の新しい見方』(講談社, 1965)이다.

25) 이러한 ‘공업화’ 중심의 근대화론에 대한 입장은 한국인들이나 일본인 지성인들이 주장한 ‘민주주의’와 공업화의 양면을 포괄하는 근대화론과는 대조가 된다. 일본인들의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는 각주 4)에 언급된 미일지식인들 사이의 1960년대 근대화론 논쟁과 김용덕, 『일본근대사를 보는 눈』, 217~224쪽 참고. 한국의 경우는 전통사상(불교, 유교)도 근대화론과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상당수 표명되었다. 『한국근대화의 이념과 방향—동국대학교개교60주년기념학술심포지움논문집』, 동국대학교, 1967, 96~109쪽(불교), 210~216쪽(유교).

26) 라이샤워 저·이광섭 역, 『일본 근대화론』, 8쪽.

이 근대화를 향해 준비한 일본 전근대사의 두 시기를 들고 있다. 하나는 그의 박사논문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6세기 말 쇼토쿠 태자[聖德太子]부터 9세기까지의 중국을 통한 ‘문명’수입기간이었다. 또 하나는 유럽의 봉건제와 닮은 일본에서 12세기부터 발전해온 봉건제도였다. 즉 영주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수직적인 구조가 도쿠가와[德川]시대(1603~1867)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일본 봉건제도의 특징으로 강력한 법령제도와 중앙집권적인 정부, 그리고 이에 더해 개인적 관계와 충성심에 기초를 둔 분권적인 사회제도를 들었다.²⁷⁾ 이 제도는 일본 사회에서 근대의 법적 개념이 만들어지게 하고 “신분지향적인 윤리관보다는 목표 지향적인 윤리관의 발달이 조장된 것”의 바탕이 되었다고 보았다.²⁸⁾ 그것이 바로 서세동점이라는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메이지유신(1868)과 이 후 100년간 진행된 급속한 공업화와 교육의 확대 등이었다.

라이샤워의 일본 메이지유신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그는 19세기 중반 산업화와 증기선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경제적/군사적 힘이 아시아를 압박해왔을 때 일본 정부는 19세기 서구의 모델에 기초해서 “근대화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²⁹⁾ 그러므로 일본의 새로운 정부의 조직이나 경제 및 군사 문제에서 효율성에 주목한다. 두 번째의 문제는 이러한 메이지 일본의 ‘근대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보다는 “내적 특성들,” 예를 들면 “일본 국민들의 엄청난 단일성과 강력한 자기 정체성”같은 것에 주목한다.³⁰⁾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에 비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러일전쟁(1904~1905)에서 일본이 승리하기까지는 “국민적 자각에 의해 자극되지(stir) 않았다”고 보

27) 위의 책, 31~33쪽.

28) 위의 책, 34쪽.

29) Edwin O. Reischauer and Marius B. Jansen, *The Japanese Today: Change and Continuity*, Cambridge, MA &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enlarged edition)(원 책은 1977, 1988년 2판), p. 83.

30) Id., p. 85.

았다.³¹⁾ 이는 물론 중국이나 한국의 근대사의 경험을 단순히 근대화여부라는 지표로 환원시켜서 보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라이샤워식의 근대화 이해는 모델로서의 ‘서구’와 수용자로서의 ‘현지’의 특성을 단순화하면서 그것의 융합이라든가 변형 등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라이샤워는 ‘근대화’에 수반하는 두 개의 정치형태로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를 상정하는데 그는 후진국의 경우에는 전자가 “보다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았다. 이것이 함의하는 비는 한국과 같은 경우에 근대화를 위해서는 결국 일정 정도 전체주의적인 정부형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³²⁾ 물론 그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선택의 문제에서 제3세계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메이지시대 시작인 1868년부터 1차대전 발발 무렵까지 급속히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그가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일본의 전통사회에서는 그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했을 때 민주주의는 완전히 서구에서 이식된 개념으로만 치환이 된다.³³⁾

이 점은 후일 한국과 같은 제3세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된다. 라이샤워는 메이지정부가 보여준 억압적인 성격에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아시아국가, 특히 한반도에서 두 차례 전쟁(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치러가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중국을 압박한 21개조 요구(1915) 등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³⁴⁾

나아가 그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부터 패전까지의 일본사회를 하나의 ‘일탈’로 보면서 군부와 정부의 민간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군

31) 물론 라이샤워도 아시아에서의 일본이 이른 시기에 ‘근대화’에 착수한 것의 장점을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Id., p.86.

32) 라이샤워의 ‘근대화론’이 가진 보수적 함의에 대해 국내의 학자 중 비교적 보수적 학자인 양병우도 일찍이 우려를 표명했다. 양병우, 『《근대화》의 개념』, 『역사학보』 33, 1967, 97쪽.

33) 라이샤워 저·이광섭 역, 『일본 근대화론』, 92쪽.

34) 흥미롭게도 그는 자신의 대표적인 개설서에서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일본의 “헌정체제”라는 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Edwin O. Reischauer and Marius B. Jansen, *The Japanese Today*, pp.89~90.

부의 독자성 때문에 일본의 일탈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취했다. 1928년 만주 군벌 장쥘린(張作霖) 폭사사건,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등도 군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설명했다. 비록 군부가 다른 부문에 비해 과시증적 경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다른 사회 부문과 연결해서 거의 설명을 할애하지 않았다.³⁵⁾

그러므로 이 논리의 연장선에서 그가 1945년 이전까지 일본 사회 내부의 ‘봉건성’에 대해 비판한 일본학자들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1960년대까지 일본 역사학자들, 특히 마르크시즘 역사학자들, 이른바 ‘강좌파’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역사학자들은 일본 사회 내부의 ‘봉건성’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급격한 일본사회의 변화를 지향했다. 이러한 점에서 라이샤워는 자신이 대사로 재임하는 당시 반공에 기초한 근대화론을 통해 ‘좌파’ 역사학자들과의 대결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다.³⁶⁾

라이샤워는 전후 미국의 일본 점령 기간(1945~1952)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이를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의 적극적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했다. 이러한 그의 역사의식과 60년대 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저항은 ‘좌익’ 일본 청년의 라이샤워에 대한 테러였다. 당시 라이샤워는 한일국교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김종필과 만나기 위해 대사관을 나서고 있었다.³⁷⁾

35) Id., 95~102.

36) Rudolf V. A. Janssens, “A Historian Being “Pushed into Modern Affairs”: Edwin O. Reischauer in Academia and Politics,” p.200. 2차 대전 전후 일본 사회의 봉건성에 대해 막시스트 역사학자들만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주목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이다. 그리고 그의 친구 E. H. 노만(1909~1957)은 미주권에서 영향력이 있었다. 노만도 일본에서 캐나다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1938년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캐나다 외무부의 대사로 일본과 이집트 등에서 활동했다. 1957년 수에즈 운하 문제로 캐나다와 미국이 정책적 차이를 보일 때 그는 미국 내에서 계속된 그의 청년 때의 사회주의 서클에서 학습한 것이 미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자살을 했다. 그의 학문과 활동에 대해서는 John W. Dower, “E. H. Norman, Japan and the Uses of History,” John Dower, ed. *Origins of the Modern Japanese State: Selected Writings of E. H. Norman*, New York: Pantheon Book, 1977, pp.3~101 참조.

라이샤워가 근대화론을 설명할 때 국내의 제도와 국제적 환경 등에 치중하기 보다는 각 사회의 사람들의 특징을 마치 역사적 ‘진공’ 상태에 있는 듯한 관점에서 다룬다. 그것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다음의 인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가 보아온 대로 일본의 중국과 한국과 같은 이웃들은 일본인들과 같은 **자질**(talents), 즉 수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과 기술, 그리고 상업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일본의 이후의 경제적 성공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던 공식적인 교육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인들이 급속도로 자신들의 경제를 근대화하고 서구를 따라잡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준 몇몇 **태도**(attitudes)를 결여하고 있었다.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외부세계에 눈을 감고 있었고 그 결과 서구가 일본인들에게 가져온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위협을 인식할 수 없었다. 더불어 그들은 일본인들이 과거 해외로부터 배워온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서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필요를 인지하거나 가능성을 이해하지 않았다(강조: 필자).³⁷⁾

위에서 언급된 자질(talents)과 태도(attitudes)는 제도적/구조적 면에서 표면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다른 지역 국가사람들이 과연 본질적으로 다른 자질/태도를 가진 것인지 의심할 수 있다. 결국 그의 ‘근대화’에 대한 설명은 주로 일본 국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탈역사적 설명이라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가 후일 급격하게 전개된 후일의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문제를 한국과 중국의 내부의 자질에만 초점을 맞추어 계속해서 이해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

한편 그는 전후 일본의 미군정을 평가할 때도 계속 일본인 자질론을 언급하

37) 『라이샤워 주일 미국대사 피습. 金鍾泌의장 만나러 대사관 나오다 오른쪽 허벅다리 찢려』, 『조선일보』 1964. 3. 25.

38) Edwin O. Reischauer and Marius B. Jansen, *The Japanese Today*, pp.298~299.

고 있다. 즉 1945년 9월부터 시작되어 1952년 봄까지 지속된 미국의 일본점령이 “변화의 효율적인 형성”을 만든 것은 바로 군부에 대한 혐오감과 평화를 애호하는 “일본인들의 태도”였다고 보았다.³⁹⁾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군정을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오히려 그는 맥아더 사령부의 막시스트적 경제문제 분석, 즉 재벌에 의한 산업집중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이 오히려 일본 경제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동아시아의 냉전 도래와 함께 1947년부터 진행된 경제부흥정책(‘역코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⁴⁰⁾ 이는 전후에도 아시아 국가의 모델로서의 일본에 대한 라이샤워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2. 라이샤워의 한국인식과 한국학

1) 라이샤워와 한국의 관계

라이샤워는 공업발전을 근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전후 일본의 공업화는 아시아의 안정을 위할 뿐 아니라 제3세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1964년 이후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라 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에 대해 라이샤워가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등을 통한 일본의 산업성장에 대해서 특별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일본의 발전을 일본 내부와 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베트남에서의 1968년 땃 공세(Tet Offensive) 이후 미국의 베트남에서의 단계적 철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라이샤워는 미군의 철수가 안정적인 철수가 되기를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1969년에 발표된 닉슨독트린(Nixon

39) Id., p.104.

40) Id., p.107.

Doctrine), 이른바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오관을 가져올 것을 경고했다. 그리고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일본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⁴¹⁾ 그러므로 여전히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아시아문제 인식의 중심에는 늘 일본이 있었다. 그것은 냉전시기 미국의 아시아인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했던 것이다.

라이샤워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는 한국과도 관련이 많은 인물이었다. 우선 그는 1935년부터 3년간 중국과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현지조사했다. 그런데 일본 체류 기간 중인 1937년 여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본토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해 가을 초 두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는데 후일 이 기간에 그는 “한국이 독자적인 전통과 긴 역사를 가진 매우 다른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이 때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압제를 보게 되었고 이후 줄곧 한국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⁴²⁾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과도 관련이 되었다. 그는 언년에 대한 박사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Koreans)이 줄곧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 인명에 대해 중국발음이나 일본어 발음이 아닌 한글발음대로 로마자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⁴³⁾ 그 때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의 역사학 박사과정에 있다가 한국에서 자료 조사를 하고 있었던 조지 맥쿤(George M. McCune, 1908~1948)을 만났다. 이들은 의기투합해서 오늘날 서구에서 중국어로마자(Wade and Giles for Chinese)와 일본어로마자(Hepburn for Japanese)에 나란히 놓일 수 있는 맥쿤-라이샤워

41) 『라이샤워교수 밝혀 “한국전 재발되면 일본에 가장 큰 피해”』, 『조선일보』 1969. 7. 11.

42)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p.67~68. 필자가 보기에 라이샤워의 글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개인 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3)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p. 69~70.

시스템(McCune-Reischauer System)를 고안해냈다.⁴⁴⁾ 후일 맥쿤은 2차대전기 미 육군부로 하여금 한국지명표기를 위해 이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했다. 그 후 한국전쟁을 통해 이 시스템은 한국지명을 표기하는 확고한 체제로 자리잡게 되었다.⁴⁵⁾

아마도 그의 한국에 대한 이러한 경험이 바로 1950년대 그로 하여금 한국 관련 교수직을 하버드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근거일 것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강좌와 교원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후일 그는 “가장 중요한 혁신”은 하버드에 한국학을 설립하는 것이었다고 했다.⁴⁶⁾ 한국정부에서 해외한국학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라이샤워는 1957년에 하버드 내 동아시아전공교수위원회(Faculty Committee on East Asian Studies)의 의장이 되었고 중국사를 담당하는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 1907~1991)가 부의장으로 있었다.⁴⁷⁾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들의 주도로 1958년 봄,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으로부터 40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해서 그 해 가을 한국학 교수직을 신설했다.⁴⁸⁾ 미국 내에서 이 자리는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일 것이다.

라이샤워는 한국사를 전공할 학자를 직접 교육하기도 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 1924~2001)이다. 와그너는 1958년 가을부터 가르치면서 1959년 가을에 조교수가 되었다. 와그너는 1941년 하버드대학에 입학했는데 2차대전 발발로 1943년부터 3년간 미 육군에 입대,

44) George M. McCune and Edwin O. Reischauer,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upon Its Phonetic Structur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9, 1939, pp.1~59.

45)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70.

46) *Ibid.*, p.171.

47) 로널드 슬레스키, 김성규 옮김, 『하버드대학의 동아시아연구—최근 50년의 발자취』, 현학사, 2008, 75~76쪽.

48)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p.147~148. 록펠러 집안과 라이샤워는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다.

근무했는데 1943~44년 1년간 시카고대학교에서 일본어 전문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해방 후 1946~48년에 일본과 한국 미군정의 외무 부서에서 문관으로 외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하버드로 돌아가서 1949년 학사학위를 마친 후 1951년까지 2년간 문리과대학원에서 동아시아지역학(Regional Studies: East Asia)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한국과 일본에서 수집한 자료로 작성한 석사학위논문은 고쳐서 낸 것이 일본 내 조선인들을 다룬 책이다.⁴⁹⁾ 이 책의 추천서문을 라이샤위가 썼다. 이 서문에 드러난 라이샤위의 시각이 흥미롭다.

전후 일본에서의 한국인들은 미점령군에 많은 성가신 문제들을 양산해냈다. 동화되지 않는 소수파로서 일본에 있는 그들의 존재라는, 겉보기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정부 차원은 아니라도 두 나라의 일부 사람들에게 쓰라림(bitterness)을 야기할 것이다.⁵⁰⁾

당시는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일본 내 조선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반대여론 등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라이샤위의 아시아에서의 접근은 ‘반공’을 매우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서문을 볼 때 그는 와그너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와그너는 그 후 ‘역사와 동아시아언어학과’(Department of History and East Asian Languages)에 박사과정으로 입학, 2년간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그는 2년간 식민지시기 경성제대에서 조선사와 조선유학사 및 불교사를 전공한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1878~1967)아래에서 한국사를 공부했다. 해방 후 다카하시는 일본 텐리(天理)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었다.⁵¹⁾ 그러므로

49) Edward W.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1이다.

50) *Ibid.*, p.i.

와그너는 일본 나라(奈良)에서 2년을 보낸 후 다시 서울대학교에 와서 1958년 까지 이병도 교수의 지도하에 한국사를 연구했다. 후일 라이샤워는 자신이 한국사로 와그너를 관심을 돌리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다고 술회했다. 한국사는 구미권에서 기피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사를 전공하려면 한국어에 더해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었다.⁵²⁾ 아마도 라이샤워는 와그너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그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와그너가 일본과 한국에서 보낸 기간과 라이샤워가 유럽과 중국, 일본에서 보낸 해수 3년은 같다.

한편 와그너는 후일 1967년부터 시작해서 전북대학교의 송준호 교수와 협력해서 조선시대 과거인 문과(文科)합격자들을 데이터로 처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약 1만 4,607명의 합격자들의 가문을 적출해내었다.⁵³⁾ 그리고 그는 조선시대 이래 한국에서 발간된 수많은 족보를 하버드 옌칭도서관에 수집했다. 또한 그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업적인 조선시대 사회(士禍)에 관한 박사논문을 보완해서 하버드에서 책으로 출간되었다.⁵⁴⁾

2) 라이샤워의 한국인식의 특징

라이샤워의 문제의식은 사실상 와그너의 문제의식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사회의 근대화과정을 연구한 라이샤워와 달리, 와그너는 한국근대사

51) 다카하시 도루는 1903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한반도에 머무르며 총독부 촉탁과 경성제대 교수로 유교를 연구하면서 조선유학을 주지학 일변도의 사상적 종속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도루, 이형성 옮김,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예문서원, 2001 참고 그의 해방 후의 행적과 사상적 (불)변화, 그것이 와그너와 어떻게 관계 되었는지는 아마도 새로운 연구과제일 것이다.

52)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148.

53)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로널드 슬레스키, 『하버드대학의 동아시아연구』, 90쪽; 에드워드 와그너, 이훈상·손숙경 옮김, 『한국학 자료 전산화의 제 문제』, 『조선왕조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참조. 와그너의 책은 그의 박사논문의 주요주제를 포괄하는 그의 다양한 논문들과 다른 주제를 다루는 여러 개의 논문들을 함께 번역한 것이다.

54) Edward W. Wagner, *The Literati Purges: Political Conflict in Early Yi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Harvard East Asian Monograph 58).

를 연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통사회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했다. 그가 사회를 연구하고 족보를 연구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한국사회의 정치문화와 사회이동성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는 우선 전통시대 한국의 왕권의 특징이 약한 것에 주목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의 왕권이 가진 ‘상징성’이 결여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양반지배 엘리트들은 반대로 “강력한 귀족제”를 유지한 ‘귀족’으로 보았다. 그에게서 강력한 귀족제와 허약한 왕권은 신라시대 이래의 특징이었다. 게다가 한국은 당과 주의로 점철되었는데 양반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정치적 역할 외에 거의 모든 역할을 경멸”했다고 했다. 특권계급에 들어가고자 하는 격렬한 경쟁이 바로 당쟁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당시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신라의 화백에서 민주주의전통을 찾고 있었던 것도 강력하게 비난했다.⁵⁵⁾

무엇보다도 와그너는 조선의 건국에서 사회가 발생한 16세기까지를 지속성이 강한 사회로 설명했다. 이것은 국내학계가 조선왕조의 건국전후의 신진사대부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⁵⁶⁾ 한 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왜 지속성이 강한 사회가 되었는지, 그 질문 자체가 매우 ‘근대화론’의 전통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전제에 경도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물론 와그너가 무조건 한국 전통을 경멸한 것은 아니다. 그는 전통한국이 ‘상징’이 적었기 때문에 “근대화라는 수화물 기차의 일부본인 새로운 개념이 더 자유롭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기독교가 한국에 잘 수용된 것은 바로 “폭력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통로로 전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의 제도가 한국에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전통시대 한국사회의 문자 해독률이 높다는 것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상소의 존재(오늘날은 신문 논설위원이 담당한다고 함) 등은 근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결정

55) 와그너의 한국사인식에 대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간략한 스케치는 에드워드

와그너,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참조.

56) 정두희, 『미국에서의 한국사연구』, 국학자료원, 1999, 27~32쪽.

적으로 근대화의 기점은 다양한 연도가 가능하겠지만 그는 1963년에 쓴 글에서 1960년이나 1961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4·19와 5·16시기 근대화가 한국에서 막 시작되었고 그 전망을 밝게 보았다.⁵⁷⁾ 이러한 점은 오늘날 한국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식민지 근대성' 혹은 '식민지 근대화'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식민지시기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 있는 지점이기는 하지만 외부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한국의 근대화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에서는 근대화를 위한 준비로서의 전근대사회라는 관점은 와그너에게 존재하지 않았거나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만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가능한 것이었던 것인가? 미국의 원조경제와 한국군부의 극단성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것을 주문한 것에서 그 단초를 본다면 지나친 것인가? 물론 와그너는 전후 미군정이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던 것과 안보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국 우익정치가들을 지원하게 된 것이 결국 한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보았다.⁵⁸⁾ 와그너가 가진 생각 중 어쩌면 현대사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평가, 즉 미국이 아시아에 민주주의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라이샤워와 통하는 문제의식일 것이다.

그러나 막후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라이샤워에게 한국근대화라는 것은 “경제적 도약”이 주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였다.⁵⁹⁾ 어쩌면 라이샤워는 한국근대화의 시작을 국교정상화, 즉 한국과 일본의 시장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공업화’를 근대화의 주된 지표로 본 관점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라이샤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와 페어뱅크

57) 위의 글, 403~405쪽.

58) 이 문제에 대한 와그너의 입장은 ‘민주적 개입’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드워드 와그너, 『한미관계 한 세기에 대한 성찰』,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참조.

59)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207.

등이 주도해서 저술한 동아시아사 개론서(『동양문화사』)에 잘 드러난다.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보면 그 인식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는 1989년 수정된 저서에서 한국 관련 부분을 와그너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고쳤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의 인식이 두드러진다.

우선 이 책의 전체 28개의 장 중 한국문제를 네 개의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두 개의 장에서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사회의 발전을 단독으로 다루고 다른 두 개의 장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근대로의 진입, 냉전하의 현대사를 다루었다.

단독 장의 제목은 각각 “초기 한국: 중국형 국가의 등장(Early Korea: The Emergence of a Chinese Type of State)”(11장)과 “이씨 왕조 한국: 모범적인 유교사회(Yi Dynasty Korea: A Model Confucian Society)”(12장)인데 한국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만 주요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⁶⁰⁾ 예를 들면 한국의 고대 인물인 단군과 기자를 전설로 부정한 위에서 기자의 한반도 유입설은 중국인의 유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위만조선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중국식민지(Chinese colony)로서 한사군의 존재는 바로 로마제국 하의 영국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한제국의 식민지와 한국의 고대국가와의 문화적 연속성은 로마의 영국과 앵글로 색슨의 영국과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것이다”고 평가했다.⁶¹⁾ 즉 중국과의 관계라는 압도적 규정력 위에서만 한국의 고대 국가의 성장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더욱 완전한 중국식 국가로서 조선후기는 당파싸움(factional strife)으로 점철된 것으로 그려진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물론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중국과 달리 “훨씬 더한 강도의 문화적 침체, 정치적 경색(immobility), 그리고 사회적 마찰”등, 그리고 양반사회의 강고한 계층질서

60) 물론 이 책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성취의 창의성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는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한국 전통사회를 제기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61) John K. Fair, Edwin O. Reischauer, and Albert M. Craig, *East Asia: Tradition & Transformation*, pp.278~279.

등을 거론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변하지 않는’ 중국보다 더욱 정체되고 역동성이 없는(immobile)” 사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쓰라린 시기(a very bitter period)를 위해 준비된 무대”가 19세기까지 한국을 위해 놓여있었던 것이다.⁶²⁾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근대화’를 수행할 수 없고 보다 강력한 외부적 동력에 의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외부의 충격 이외에는 한국이 자체로는 깰 수 없다는 전형적인 “충격-반응”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19세기 말 윌리엄 그리피스 등이 주장한 한국의 전형적인 중국형 국가모델과 통한다. 즉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한국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⁶³⁾

이러한 서술의 기본 방향에 대해 라이샤워는 자신의 의도는 역사상에서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한국을 그리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당시 영어로 번역된 한국학은 일본학자 하타다 타카시(旗田巍, 1908~1994)의 『조선사』(1951)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 의도와 관계없이 서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⁶⁴⁾ 흥미롭게도 라이샤워도 후일 『동양문화사』의 한국사 관련 서술을 위해 이 책에 많이 의존했다고 고백했다.⁶⁵⁾ 그러므로 하타다의 저술이 라이샤워가 서술한 한국 관련 저술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하타다의 저술과 전후 한국 관련 연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상세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라이샤워의 서술과 관련된, 한국사 전반에 대한 인식의 기초에 대해서만 검토해보고자 한다.

62) Ibid., pp.322~323.

63) 이에 대해서는 안종철,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의 일본과 한국인식(1876~1910)』, 『일본연구』 15,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2011 참고

64) 旗田巍, 『朝鮮史』, 東京: 岩波書店, 1951(2008년 재간); 이 책은 Hatada Takashi (Warren W. Smith, Jr. and Benjamin H. Hazard trans). *A History of Korea*, Santa Barbara, CA: ABC Clio Inc., 1969로 영어권에서 발간되었다. 라이샤워나 와그너는 후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글에서는 영문판을 기준으로 하타다의 입장을 다루겠다.

65)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p.149.

하타다는 식민지 조선의 마산에서 아버지가 의사로 중산층의 삶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으로 돌아가 쿠마모토 제5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 제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만철 조사위원으로 해방될 때까지 줄곧 중국에서 연구생활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전공이 중국 근대사로 주로 농촌지역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 그 후 해방 후 일본에 돌아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조선사연구회를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사연구에 뛰어들었다.⁶⁶⁾

잘 알려져 있듯이 19세기 말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역사학이 막 성립하려고 할 무렵에 한반도는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제도권의 근대역사학은 일제의 한국침략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한국사 서술을 주도했다. 특히 청일전쟁(1894~95)부터 러일전쟁기(1894~1905)까지 일본인들은 한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면서 고대 한일 간의 관계라든가 전통시대의 정체성 등에 대한 지적작업을 수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식민지하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고 중추원(中樞院)에 의한 『朝鮮史』(35권)이라든가 『朝鮮古蹟圖譜』(15권)등으로 생산되었다.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사 생산은 일제의 부정적인 한국사인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나마 조직적인 한국사지식 생산은 식민지가 해방되자 붕괴되었다. 하타다가 보기에 기존 연구의 큰 문제점은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 자체에 대해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⁶⁷⁾

그러므로 하타다의 1951년 저작(『朝鮮史』)은 한국사의 독자성을 연구하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

66) 그의 이력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1959년 조선사연구회를 창립했고 제일동포 이진우 소년 감행운동, 김희로 구명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초 한일회담 반대운동에도 가담했다. 하타다의 이력에 대해서는 고길희, 『하타다 다카시—마산에서 태어난 일본인 사학자』, 지식산업사, 2005 참조.

67) 하타다는 일제의 한국사 연구 정책이 한국인에 의한 한국사 인식을 막았고 ‘조선’이 당시 한국인들에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였다는 것들이 원인들이라고 보았다. 이에 더해 더욱 문제점은 한국사 연구가 너무 고대사의 문헌해석이라든가 지명문제 등에 편중되어 있어서 젊은 학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보았다. Hatada Takashi, *A History of Korea*, p.xii~xiii.

이었다. 이것은 전전 한국에 대한 연구가 일제의 대륙 침략 정책에 연관되어 만주나 중국에 부속된 영역으로 진행된 것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일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부정적인 한국인상을 바꾸는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민중’의 성장에 주목함으로써 종래와는 다른 설명력을 가진 저술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술의 첫 출발점이 바로 “조선인들의 고뇌를 자신의 고뇌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⁶⁸⁾ 이때 “조선인들”은 주로 일반 민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저술에서 지배층의 억압과 민중의 투쟁이라는 관점으로 주로 설명의 구도를 끌어가면서 통일신라 말기의 신라귀족들과 지방의 민들의 대립, 고려 귀족 정부와 농민/노비들의 대립, 원지배 체제와 농민의 대립 등에 주목했다.⁶⁹⁾ 그리고 조선시대에 대해서도 초기 전시과(田柴科)체제의 안정성과 그것의 문란, 당파싸움, 임진왜란, 만주침략을 통한 조선민중의 고초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의 르네상스로 설명되는 영정조(1724~1800)시기도 당시 만연한 기아와 농민들의 고초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⁷⁰⁾ 그러므로 근대사에서도 동학과 같은 조직적인 농민들의 반항과 봉기 등이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⁷¹⁾

이러한 민중 위주의 접근이 가진 장점은 역시 역동적인 사회상을 보여주고 억압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 역사상을 풍부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배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 정치의 조율적 기능에 대해 극단적으로 불신하는 경향이다. 그 결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전통시대의 지배층과 민중을 이

68) 旗田巍, 『朝鮮史』, p.v; 영문판에서는 “한국인들이 겪은 어려움을 공감(appreciation)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가 가진 약점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상세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가 동경대 동양사학과와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의 제자였고 이 책을 쓸 때도 그의 도움을 받았다. Harada Takashi, Id., p.xiii.

69) Harada Takashi, Id., pp.32~36, 47~48.

70) Id., ch. 5.

71) Id., pp.98~104.

분법적으로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왕실이나 양반 계층의 문화적 유산 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등에 대해 답을 주지 않는다.

하타다 저작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여전히 정체성론, 고대 일본의 한국지배설, 한국인의 문화적 창의력의 부재 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⁷²⁾ 특히 근대화의 성취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는 관점을 함의한다. 이것은 라이샤워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라이샤워가 참여한 『동양문화사』에서는 비록 미약하지만 조선후기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라든가 지적/문화적 변화를 일부 다루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양문화사』와 하타다의 연구는 지배층-민중의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한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한국사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정체된” 한국사의 象(象)을 보여주고 있다.⁷³⁾ 결국 의미있는 근대사회로의 진입은 그것이 일본이든 미국이든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는 연구들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2차 대전을 전후하여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일본학을 수립하고

72) 후일 그는 자신의 이러한 연구를 반성하는 발언을 했다. 旗田巍, 『日朝關係と歴史學』, 『日朝關係史を考ふる』, 東京: 青木書店, 1989 참조.

73) 최근에 미국에서 발행된 동아시아관련 대학교재에서는 조선시대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후기의 상업발전, 유교문화의 진전, 한글의 확산, 여성들의 역할, 노비의 감소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근대사에 있어서 19세기의 농민반란의 복합성이라든가 구한국정부의 근대화 노력과 한계, 일본 지배의 개발과 착취라는 양면성 등을 비교적 공정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다. Patricia Ebrey, Anne Walchall, James Palais, *East Asia: A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Boston·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2009, pp.250~252, 354~359. 이 책은 전체 30장 중 6개의 장을 한국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시대 중국의 문화전파라든가 근대시대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지도를 전제한 서술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 책은 미국 대학 내 아시아 관련 교과서로 『동양문화사』를 대체하고 있다.

1950년대 말 한국학 수립에 깊게 관여한 라이샤워의 활동과 사상을 그의 ‘근대화론’에 기초해서 살펴보았다. 그의 경우에서도 보이듯이 아버지 세대의 선교사로서의 일본과의 관계가 그가 후일 일본학을 전공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자신을 미국인을 규정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다른 지역에 대한 지식을 수립하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베트남전에 대한 지원과 ‘근대화론’은 후일 일본사연구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대한 신중한 개입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등은 라이샤워의 현대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진보적” 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이샤워가 자신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집필할 때 언급했다시피 그는 전전과 전후 한국사 연구를 담당한 일본인 학자 하타다 다카시의 저작에 많이 의존했다. 하버드의 한국학 교수인 에드워드 와그너에게서도 도움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라이샤워가 보여준 한국사 인식 중, 한국의 독자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전통사회의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견해, 그리고 한국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와그너, 그리고 그가 사사 받았던 다카하시 도루, 그리고 라이샤워가 도움을 받았던 하타다의 연구와 연결되는 지점인데 이러한 전후 일본의 한국학 인식과 구미의 한국학연구의 연결지점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라이샤워의 사례는 전후 구미의 한국학과 전전/전후 일본의 한국학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준다. 적어도 최근까지도 이러한 전전의 한국사와 전후 변형된 형태의 한국사, 그리고 미국의 ‘근대화론’의 묘한 접합점이 미국에서의 동아시아사, 특히 한국학에 짙은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시대상이나 가치관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사학은 존재할 수 없지만 그 시대적 한계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사학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것은 라이샤워의 학문과 활동, 그리고 그것이 한국학과 관계에서 던지는 시사점이라

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에드윈 라이샤워, 근대화론, 미국의 한국학, 에드워드 와그너, 하타다 다카
시

최초투고일: 2012년 6월 21일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17일

Abstract

Edwin O. Reischauer’s “Modernization Theory” and Recognition of Korean History

An, Jong Chol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Edwin O. Reischauer’s “Modernization Theory” in relation to Korea. As is well known, the theory has diverse meanings such a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However, Reischauer rather focused on industrialization. To Reischauer sometimes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is interchangeable. In his idea, Japanese society had prepared well for modernization before Meiji Restoration (1868) because it had feudal society with commercialization. Japanese Modernization is a role model to East Asia so that he supported Korean-Japanese Normalization Treaty (1965) as US Ambassador to Japan.

In his chapters related to Korea writing in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he and his disciple and professor, Edward W. Wagner argued that Korea was more sinicized than even China. Wagner studied in Japan under Takahashi Toru who was colonial expert on Korea before 1945. In the book, traditional Korea was full of stagnation and political strife. Just after World War II, there was so few Korean history textbook in English so that they relied upon English translation of the *Chosenshi* [Korean History] written by Hatata Takashi, a Japanese historian who focused on China before World War II and changed his interest into Korean history after Japanese

surrender.

In *Chosenshi*, Hatada might resurrect Koreans in traditional society with a dynamic relation between the oppressed people (*minjung*) and ruling class. However, most Korean people is depicted as only oppressed by the ruling class so that the society was still stagnant and oppressing. It assumed that Korea was only modernized by outer forces. The thesis is typical impact and response model. In terms of the fact that Korean traditional society was not prepared for modernization, Hatada and Reischauer has a common ground.

Through Reischauer and his influence, it is explained how Korean Studies was set up not only as institutions but also with unique contents. In forming the Korean Studies in the US, there were complex nexus among colonial Japanese intellectuals, progressive postwar historians, and US modernization theorist.

Key words: Edwin O. Reischauer, Modernization Theory, Korean Studies in the US, Edward W. Wagner, Hatada Takashi